

中, 저가 전투기
합작개발키로

중국은 파키스탄, 러시아, 유럽 회사들과 협력해 가격이 저렴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 고성능 전투기를 살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지가 보도했다.

동 신문은 중국항공기술진출구총공사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 "세계의 고성능전투기들과 비교할 때 중국이 개발하려는 FC-1기는 성능면에서 첨단 전투기의 70% 기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훨씬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FC-1기가 오는 97년 처녀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21세기초에는 MiG-21, Mirage-III, F-5, F-7등을 대체하는 최적의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자체 기술로 신형 전투기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말 전투성능시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군사기밀을 이유로 신형 전투기의 기종과 성능 등에 대해서는 밝혀진바가 거의 없다.

DASA, 신형 전투기
개발 계획

독일 다 이플러-벤츠사(DASA)는 유로파이터 계획에도 불구하고 신형전투기 개발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고 슈피겔지가 보도했다.

DASA의 신형 전투기 모델은 기존의 독일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가 될 뿐 아니라 현재 독일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유로파이터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동 잡지는 전망했다.

유로파이터 계획에 따라 독일은 신형 전투기를 1백80대까지 사들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개국은 각국의 생산 참가 비율에 따라 구입 대수를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며 독일은 개발 및 생산 작업에 가장 많이 참가할 것을 주장해왔다.

새로운 DASA 모델은 레이더 탐지망을 피하기 위한 스텔스(Stealth)기능, 급회전 및 과감한 작전수행시 제어가 가능한 배기장치등을 포함한 최신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러시아 무기수출
68% 증가

러시아가 지난해 3년간에 걸친 방위산업 구조조정에 힘입어 무기수출이 작년보다 68%나 급증, 세계 제2의 무기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국영 무기회사 로스부루제니예사의 발레리 포그레벤코프대변인은 AFP통신을 통해 지난해 러시아의 무기수출액이 94년의 16억달러에 비해 68%늘어난 27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백50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계 무기시장의 13%선에 달하는 규모이다. 94년 영국이 26억달러를 판매, 세계 2위를 차지했지만 아직 지난해 통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미그전투기를 비롯해 장갑차 로켓 발사기 및 칼라쉬니코프 소총 등이며 MIG-29전투기 18대를 5억5천만달러에 구입한 말레이시아가 최대 수입국이었다. 포그레벤코프 대변인은 무기수출 증대가 지난해 11월 시작된 방위산업 구조조정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러시

아 방위산업은 지난 91년 구소련 붕괴이후 무기가격 하락 및 경쟁 등에 직면, 혼란을 겪어오다 지난해말 보리스 옐친대통령과 올레그 소스코베츠 부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로스부루제니에사의 독점판매 경영체제가 부활되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모든 무기생산 업체들은 동 회사에 약 3-5%의 수수료를 내야 무기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시프리씨는 러시아의 무기수출액이 공식통계와는 달리 92년 36억달러, 93년 45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공식통계치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92년 15억달러, 93년 17억달러에 불과했다.

미공군,

T-38 훈련기 개조시작

미공군은 노드롭 T-38 고등훈련기 업그레이드사업에 대한 RFP접수결과 크라이슬러테크놀로지(Chrysler Technologies)사 등 총 9개업체가 응모하였다고 발표했다.

7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동 사업은 2020년까지 T-38훈련기를 개조하게 되는데 조종석은 미공군 전투기의 앞라인 형태로 개조

되며 전방시현장치(Head-up display)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GPS가 새로이 도입되며 기타 신뢰도, 운용성, 이용성등 개선된다. 앞으로 36개월동안 두대의 업그레이드가 생산되어 시험될 예정이다며 99년과 2004년 사이에 425대가 추가로 제조될 것이다. 사업권을 획득하게된 업체는 또, 개조된 T-38에 대한 승무원 훈련장치도 개발할 예정이다.

T-38 개조사업은 F-5 개조사업설계와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맥도널더글라스사가 F-5 개조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항공기산업 라하브(Lahav)지구와 제휴한 반면 노드롭 그루만사 F-5개조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엘비트(Elbit)사의 미자회사인 EFW사와 손을 잡았다. 이와같은 경쟁은 또한 기존의 경쟁이 풍부한 해리스(Harris)사나 크라이슬러 테크놀로지사, 로탈사, 록히드마틴사, 록웰사등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미, 헬기조달계획에 고심

장래 미 군용 헬기조달은 시콜스키(Sikorsky)사의 UH-60 추가 구매, 벨(Bell)사의 AH-1W와 UH-1N의 현대화계획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앞으로 몇 주안에 '97회계년도 국방예산을 신중해 검토하여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이 추가적인 UH-60의 구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 해병은 100대의 UH-1N 헬기의 현대화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야심찬 UH-60 조달계획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콜스키사의 제안은 160대의 UH-60을 혈값에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미 국방부는 현재 동 제안을 평가함과 아울러 '97회계년도 국방예산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조사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조달담당인 Kaminski씨가 이미 내년도 예산중 2억달러가 미군이 원치않는 UH-60L 18대를 구입하기 위해 배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하며 향후 5년간 10억달러 상당의 UH-60 9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콜스키사의 입찰은 30억달러로 2020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해병의 AH-1W와 UH-1N의 개량사업과 대치되고 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UH-1N의 현대화계획을 추천하고 있다고 한다.